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2021 학년도

학사학위 졸업논문

언택트(Untact) 시대  
신앙 공동체의 유지에 관한 고찰

기독교학부 기독교학과

언택트(Untact) 시대  
신앙 공동체의 유지에 관한 고찰

이 논문을 학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기독교학부 기독교학과      박 유 연

## 목 차

|                             |    |
|-----------------------------|----|
| I. 키.....                   | 1  |
| II.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신앙 공동체 ..... | 2  |
| 1. 예배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     | 2  |
| 2. 성만찬예전에서의 신앙 공동체 .....    | 3  |
| 3. 친교, 교제의 신앙 공동체 .....     | 3  |
| III. 가상공간에서의 신앙 공동체 .....   | 4  |
| 1. 예배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     | 4  |
| 2. 성만찬예전에서의 신앙 공동체 .....    | 6  |
| 3. 친교, 교제의 신앙 공동체 .....     | 7  |
| IV. 결론 및 제언 .....           | 7  |
| 1. 결론 및 제언 .....            | 8  |
| 1) 예배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     | 8  |
| 2) 성만찬예전에서의 신앙 공동체 .....    | 9  |
| 3) 친교, 교제의 신앙 공동체 .....     | 10 |
| 2. 한키¶ .....                | 10 |

참고문헌

## I. 서론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현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시차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생활이 가능해졌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상 통화 등의 방식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우리가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공한다. 그 예로, 최근에는 '랜선'이라는 접두사를 통해 랜선회의, 랜선콘서트, 랜선페스티벌 등 인터넷을 통한 여러 관계성에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형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이 타인과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 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문화에도 또한 영향을 미쳐 예배 전반에까지도 크고 작은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방식은 온라인 심방에서부터 온라인 교육 등의 국소적인 범위에서부터 예배와 그 이상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미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였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대면 예배와 같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점은 코로나시대를 맞아 확정되어 비대면 예배가 급진적으로 일시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며 임시방편으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기에는 코로나의 종식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변화된 삶의 형식이 지속,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면 예배가 더 이상 일시적인 대안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더욱 다양한 형태로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확대되면 새로운 신학적 논거를 세우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비대면 예배, 랜선 예배라는 표현은 어색하게 들린다. 이는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예배의 형태인 것뿐만 아니라,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코로나시대 이전에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등의 예배 순서를 함께 따라가는 것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바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서로 대면할 때 가장 크게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모두 물리적인 공간, 즉 예배당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연결성의 측면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존속하는데 필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랜선 예배를 시행하면서 느껴지는 연결성의 결여감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며, 다 같이 모여 드린다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 또한 제기된다. 하지만 가상공간을 물리적 공간처럼 사용한다면, 이러한 연결성의 결여에서 촉발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결성의 결여를 해소하는 차원은, 비대면 예배가 확장되었을 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물리적인 공간이었던 예배당을 비대면 예배로, 즉 가상공간으로 옮겼을 때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도서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에서 제시한 사이버 공간 예배에 대한 해석 중 ‘공간의 근접성시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II.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신앙 공동체

물리적인 공간인 교회 예배당은 신앙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며, 연결성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는 예배를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제와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예배를 수행할 때는 개인적으로 또는 혼자 예배를 진행, 참여하지 않는다. 즉, 공현전(co-presence)이 전제된다.<sup>1 2 3</sup> | 교제와 친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발생 가능하다. 즉 혼자 교제와 친교를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예배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에서부터 성경봉독, 대표기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한다.<sup>3)</sup> 이러한 참여를 예배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어떠한 연결성을 제공하는지 보고자 한다. 예배의 순서는 크게 네 순서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개회예전에서는 집례자의 선포를 통해 예배가 시작됨을 알린다. 이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한 예배에 참여함을 인지하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대표기도에서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개인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서의 예배임을 알 수 있다. 사도신경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또한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말씀예전에서의 성경봉독은 대표기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묵상을 위한 성경 구절을 단순히 읊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설교에서는 과거에 기록된 성경을 현재의 공동체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삶의 방향을 수정,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신앙 공동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성만찬 예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는 예수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되새기며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sup>4)</sup> 성만찬 예전에 참석한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예수의 부활과 그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재확인 할 수 있다. 파송예전은 예배를 마무리하며 다시 세상으로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간 구성원들은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동시에 삶 속에서의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한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파송예전이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예배당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는 예배당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세 순서, 개회예전, 말씀예전, 성만찬예전은 신앙 공동체

1) 테레사 베르거,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안선희, CLC, 2020, p.115

2) 안선희, 「예배와 촛불집회의 의례, 퍼포먼스적 성격에 관한 고찰」, 『신학과실천』, 제58호, 2018, p.41

3) 안선희, 「예배 참여자 모두가 주체다」, 『새가정』, 새가정사, 2008, p.24

4) 안선희,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새가정』, 새가정사, 2007, p.44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서 모이는 것, 즉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연결성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 2. 성만찬예전에서의 신앙공동체

특히 성만찬예전의 경우,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각적인 참여가 일어난다.<sup>5)</sup> 시각적, 청각적인 감각보다도, 미각과 촉각에 방점을 두는 성만찬예전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떼는 행위, 마시는 행위가 나눔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의 나눔은 결코 개인 혼자 진행할 수 없으며, 행위를 통한 소통을 통해 그 의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만찬예전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나눔을 통해 진행되는 감각적인 예전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은 공현전이 전제될 때 비로소 경험 가능하다. 공현전은 물리적 공간에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면예배를 진행할 때는, 예배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감각적, 특히 촉각과 미각 등으로 경험 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는 등의 체험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는 일상과 구별되는 집단에서의 예배라는 공통된 경험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3. 친교, 교제의 신앙 공동체

예배 전후로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나면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 하거나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지난 예배의 파송 이후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다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예배 안에서의 성만찬예전과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삶에서 살아낸 예배의 경험과 개개인이 느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의 공유를 통해 예수와 그 사역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과정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을 수반하며 신앙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배 이외의 순간을 삶에서 살아내는 예배의 연장, 즉 파송 단계로 간주한다면, 아마 이러한 친교와 교제는 파송 이후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자도를 수행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가 그의 저서들에서 설명한 신앙 공동체를 강안일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말씀과 공동체가 갖는 관계는 공동체성, 공간, 그리고 사회성을 요구하고,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드러나며,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본질적인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비

5) 안선희, 위의 논문, p.43

6) 안선희, 「예배 연구 주제로서의 ‘온라인예배 실행’」, 『신학과 실천』, 제69호, 2020, p.18

7) 안선희, 위의 논문, p.44

8) 강안일,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저작을 중심으로」

즉, 여러 사람들과 친교와 교제를 행할 때 비로소 말씀이 공동체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예배 안과 예배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말씀의 발현과, 공동체의 말씀으로의 합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강안일에 따르면, 본회퍼의 저작들 중 『성도의 교제』와 『행위와 존재』에서는 그리스도가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한다.<sup>9)</sup> 즉 개개인이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나눔, 친교, 교제 등과 같은 행위들을 통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연장이며, 나아가 작은 예수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친교와 교제, 즉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하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 III. 가상공간에서의 신앙 공동체

앞에서 예배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현되는 신앙 공동체의 두 가지 큰 특성, 첫째로는 예배에서 신앙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의 실제성을, 둘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친교와 교제가 갖는 실제성을 살펴보았다. 예배에서 신앙 공동체가 참여하는 과정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공현전을 전제로 한다. 함께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친교와 교제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간의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구성원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말씀이 발현되는, 그리스도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제와 친교의 과정은 소속감과 유대감으로부터 기인한 연결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예배와 예배 밖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연결성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유지, 존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상공간에서 신앙 공동체가 이전, 존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가부를 파악하고 이의 특징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친교와 교제의 가능성 여부를 통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예배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예배가 가상공간으로 옮겨오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공동체 구성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줄어들거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주로 진행되는 비대면 예배의 양상은 예배 집례자가 모든 순서, 개회예전, 말씀예전, 파송예전을 진행한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예배가 가상공간에 옮겨오면서 평신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것 외의 다른 행위도 하기 어려우며, 예배의 참여를 통해 발생한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기적인 연결성 또한 약해질 수 있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동시성을 보장하며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물리적

『신학과 선교』, 48권 0호, 2016, p.37

9) 강안일, 위의 논문, p.37

인 공간감은 부족할 수 있지만, 시각과 청각의 확대를 통해 가상공간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 접속한 링크로 대변되는 가상공간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접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가시적으로 혹은 공간감을 느끼며 그들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수단으로 사용해 시각과 청각을 가상공간으로 확대하면, 비로소 공동체 구성원들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순서를 음성과 영상의 결합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감각이 축소되고,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비대면 예배에서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상상에 의존한 것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사실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거나 가정하는 선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최소한의 감각을 허용해 미약한 연결성이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신 비대면 예배에서 발생하는 다른 감각들의 결여를 보충할 수 있는 순서를 마련해 공동체성을 증폭시켜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테레사 베르거는 확장된 예배 레퍼토리를 제시한다.<sup>10)</sup> 테레사 베르거는 저서에서 초기 기독교 예배의 역사를 보면, 초기의 신앙 공동체들이 예배를 선택했다는 점을 언급한다.<sup>11)</sup> 또한 한국 교회의 많은 교단들을 보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하고 소극적인 차이가 아니라, 공간의 이동과 개념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예배의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지정하는 것, 이를 가상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가상공간은 무한하며 어떤 것이든 상상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예배를 가상공간에 옮겨오는 것과 예배당을 가상공간에 옮겨 오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예배가 갖고 있는 레퍼토리인 개회예전, 말씀예전, 성만찬예전, 파송예전의 유형은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상환경 안에 여러 종류의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예배는 개회예전과 파송예전에 방점을 두는 예배이거나, 또 다른 예배는 말씀예전에 중심을 두는 예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의 종류를 확장해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 각자의 예배 경험을 나눈 것으로부터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예배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예배당을 가상공간에 옮겨오는 것을 통해 새로운 연결성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배당이라는 물리적이고 한정적인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예배당이 갖고 있는 기호와 상징들을 가상공간으로 옮겨오면서, 그 의미는 훼손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이다. 십자가를 예배당에 걸어둌으로써 예수를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를 떠올릴 수 있는 십자가 같은 상징물이 아닌 상징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느끼는 것을 동일 혹은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상공간으로 승화된 예배당과 그 내부의 여러 기호와 상징들을 통해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서를 만들거나, 재구

10) 앞의 책, P.20  
11) 위의 책, P.20



성하는 것을 통해, 가상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성만찬예전에서의 신앙 공동체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만찬예전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시대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성만찬예전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코로나시대 이후에 감염의 위험 없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의 성만찬 예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성만찬예전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를 떠올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sup>12)</sup> 위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과정은 나눔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에서는 이러한 상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성만찬예전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는,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의 성만찬이다. 보통은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 이를 예배시간에 성만찬예전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떡과 포도주를 신앙 공동체 구성원 개인에게 미리 분배한 후, 이를 비대면 예배 때 순서에 맞게 먹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단순한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원래 성만찬이 갖는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비대면 상황에 놓인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해당되기 어려운 차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있거나 식단에 규제가 있는 경우, 혹은 상당한 원거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는 근거리에 있거나 여건이 되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확장된 차원에서의 성만찬이다.<sup>13)</sup> 테레사 베르거의 저서에서는 온라인 성찬식에 대해 소개한다. 온라인 성찬식이란 디지털로 매개되는 성찬식을 의미한다. 베르거는 이러한 성찬식에서의 나눔에 대해 더 큰 범위의 에큐메니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한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성찬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상상할 수는 없으나,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해보면,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상태는 구성원들의 유입에 있어서 한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범위의 공동체는 결국 온라인을 매개로 구성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성찬식에서 경험 가능한 공동성과 체현성이 손상된다는 문제가 있음을 베르거는 밝힌다. 또한 가상의 공간이라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물질, 즉 떡과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을 언급한다. 그러나 베르거는 피터 필립스(Peter Phillips)의 주장을 소개한다. 피터 필립스는 직접 함께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다른 여러 메신저와 같은 매체로도 약하지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직접 모였을 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연결성보다는 약하지만, 가상공간에서 모이는 것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감각은 시각과 청각뿐이다. 온라인 성만찬을 진행하기 위해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 나누고, 마시는 행위는 미각에서 시각, 미각에서 청각, 혹은 이 둘 모두로 넘어갈 수 있다. 이를 베르거의 저서에서는 '디지털 빵과 포도주'라고 명명한다.

12) 안선희, 앞의 논문, 2007, p.44

13) 테레사 베르거, 위의 책, pp.220-230, 해당 문단, 여기서 확장된 차원에서의 성만찬에 대한 부분은 베르거와, 베르거가 소개하는 인물들의 주장을 참고, 정리해 기술한다.

다. 성만찬예전에서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 너머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터 필립스는 하나님이 어느 한군데에 매여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한다고 하면, 꼭 실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디지털 빵과 포도주일지라도 이를 통해 축복할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 성만찬예전을 마치고 이 경험을 신앙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한다면,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대면인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 모두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예전을 가상공간에서 참여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해 신앙 공동체로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 3. 친교, 교제의 신앙 공동체

예배를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보다 친교와 교제를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친교와 교제는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수년간 진행되어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안일의 논문을 통해 본회퍼가 친교와 교제를 위해 공동체성, 공간, 사회성이 충족될 때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상공간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공간이다. 이외의 공동체성, 사회성 등은 충분한 경험의 공유와 나눔을 가상공간에서 실행하면 대면 상황만큼은 아니더라도 연결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경우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테레사 베르거는 저서에서 네이션 유르겐슨(Nathan Jurgenson)의 주장을 소개 한다.

“‘인간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순간들’ 가운데는 서로에게 주목하는 순간, 서로에게 공감하는 순간,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간이 포함된다.”<sup>14)</sup>

이에 베르거는 유르겐슨의 위의 주장은 모두 먼 거리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내 | 유르겐슨과 베르거의 의견에 동의한다. 신앙 공동체에서 물론 만남과 그 외의 대면인 경우에 가능한 여러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의 신앙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말씀으로 체화해 살아내기 위해서는 비대면 상황이라고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면인 상황만큼 강력한 연결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새로운 결의 연결이 비대면 온라인 친교와 교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가상공간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메신저를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지속된다면, 홀로그램과 같은 실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친교와 교제 또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IV. 결론 및 제언

14) 테레사 베르거. 위의 책, pp.115-116

15) 테레사 베르거. 위의 책, p.U5

## 1. 결론 및 제언

언택트(Untact) 시대에 신앙공동체가 가상환경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신앙공동체가 대면 상황의 예배와 예배 밖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통해, 이를 가상환경에서 진행되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상황으로 반영, 적용시킬 수 있다. 신앙공동체는 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사람이 가상환경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신학적 가치가 함께 가상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은 신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가상환경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 예배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직분의 구분 없이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개회예전에서 파송예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삶으로까지 예배를 연결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사실과 소속감, 유대감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되어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진행된 예배를 가상공간으로 옮겨 오는 것은 가능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비대면 예배는 가상공간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비대면 예배에서는 감각의 결여가 발생한다. 경험 가능한 감각은 시각과 청각인데, 이를 기술을 통해 가상공간으로 확대해 시각과 청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를 예배에 적용해 원활한 작동으로,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시각과 청각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여된 감각들을 보완, 보충할 수 있는 순서를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배의 순서를 바꾸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이다. 또한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배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예배는 공간의 제약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예배, 다양한 유형의 예배를 구성, 재편성 할 수 있다.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예배에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해 이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 나누는 것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도 또 다른 예배에 참여하고 이를 공유하는 반복을 통해, 대면 예배에서 경험 가능했던 예배에 참여한다는 연결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의 예배 형태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기독교는 몸을 긍정하는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는 상태, 즉 감각적으로 몸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인 가상공간을 통한 예배만을 추구하는 등의 치우친 부분은 신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비대면 예배가 시행된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상공간으로 예배를 이전할 때, 이에 대한 재해석과 개념의 확장은 수반하지만 몸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시키는 것에는 다음 방법을 제언한다.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혼합하는 것이다. 현재 에 도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이 를 유연하게 운영 하는 교회 가 다수 있다. 대면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 및 신앙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강력한 연결성과, 비대

16) 안선희, 위의 논문, p.17

면 예배를 시행하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 즉 가상환경의 가능성을 사용하는 부분을 결합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가상공간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예배당과 가상공간은 모두 공간이라는 것과, 신앙공동체 구성원이 모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두 개의 다른 결의 예배 방식을 혼합하는 것은, 예배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적 체계가 많은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다면 아마 더 건설적인 방향의 예배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2) 성만찬예전에서의 신앙 공동체

성만찬예전은 예배의 한 순서로서 진행된다. 성만찬예전은 다른 감각들보다 미각과 촉각을 통해 참여한다. 그리고 이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눔이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즉 신앙공동체 내에서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대면으로 진행되는 성만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공현전을 통해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지하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기억하고,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나아가 하나님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성만찬예전을 가상공간으로 옮겨오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미각과 촉각을 통해서 이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거리에 위치한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만찬예전 전에 미리 소분해 배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의 가상공간은 좁은 의미에서 예배당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배분받기 어려운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 빵과 포도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배가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만찬예전 또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빵과 포도주처럼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상징체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미각과 촉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성만찬을 진행한 후, 이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제약을 두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다는 가상공간의 특징과 함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성만찬예전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성만찬예전은 예배의 큰 범위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몸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성만찬예전을 가상공간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나눔과 친교 등을 통해 유기적인 연결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성만찬예전에 대한 제안은 예배에 대한 제안과 맥을 같이하는데, 다양한 예배 방식이 가상공간에서 시행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성만찬예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다양한 문화권에 스며들면서 성만찬예전이 독특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독교인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용한 빵과 포도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 대신 개인이 예수를 떠올리고 체화할 수 있는 다른 상징 매개를 사용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예배 집례자, 특히 목회자들이 신학적 측면에서 상징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신앙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해, 신학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상공간의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의가 우선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베르거의 저서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어플을 이용한 미사, 웹사이트를 통한 미사 등을 진행하는 것<sup>17)</sup>과, 가상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의 떡과 포도주가 대면 성만찬 예전에서 이전해올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상황에 맞는, 언택트 문화에 맞게끔 수정,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3) 친교, 교제의 신앙 공동체

친교, 교제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공감하는 것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경험, 생각 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에서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고 이를 신앙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파송예전은 예배의 폐회가 아닌, 삶으로의 예배를 실천하도록 하는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배가 마치면 삶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해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데, 이를 신앙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며 기대하는 과정은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대면 상황에서 친교와 교제는 즉각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으나, 이를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현재에도 폭넓게 사용되는 메일과 메신저만 하더라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 기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의 기술로는 시각과 청각을 필두로 하는 가상환경에서의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이 발전하다면 더욱 실제 같은 가상환경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대면 친교, 교제와 비견될 수 있는, 즉 공간감이 더 실제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가상공간에서의 친교와 교제에 대한 제안은 다음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지속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면 예배는 매주 한번 이상-, 특히 주일에는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주일을 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와 친교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앙공동체 구성원 개개인들이 모두 의지와 주체성을 갖고 친교와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 2. 한계점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통찰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와 모든 변수를 책정해가며 이를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한 급진적인 변화는 비대면 예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앙공동체 유지 가능 여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지털 원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17) 테레사 베르거, 위의 책, pp.213-230

## V. 참고문헌

테레사 베르거, 『머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안선희, CLC, 2020

강안일,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저작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48권 2호, 2016

안선희, 「예배와 촛불집회의 의례, 퍼포먼스적 성격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제58호, 2018

안선희, 「예배 참여자 모두가 주체다」, 『새가정』, 새가정사, 2008

안선희,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새가정』, 새가정사, 2007

안선희, 「예배 연구 주제로서의 ‘온라인예배 실행’」, 『신학과 실천』, 제69호, 2020

